

(주)바이엘코리아

“혁명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갖춘다”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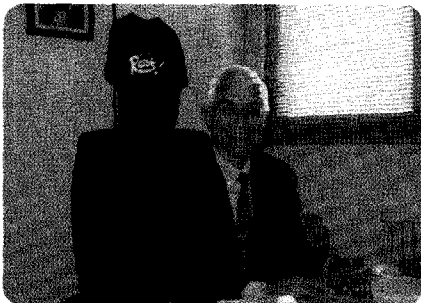
세계적인 제약 및 화학회사인 바이엘의 배닝 회장은 지난해 혁명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말인 즉, 핵심사업에만 투자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는 것.

(주)바이엘코리아(대표 마르코스 고메즈)도 기존 (주)미성을 독립법인체인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주)”로 새로 출범시키고, 진단사업은 올 1월 1일부터 바이엘코리아 헬스케어로 흡수되는 등 독일 본사 방침에 의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단, 헬스케어(Heath Care), 화학제품(Chemicals), 폴리머(Polymers) 사업부의 경우는 종전대로 바이엘코리아 산하에 있으면서 본사의 구조대로 재정비되었다.

한국시장에 맞는 동물용 의약품 생산에 박차

지난해 본사 구조조정에 따라 새로 단장된 바



(주)바이엘코리아 동물용의약품부
부사장 Hans Taenzler

이엘코리아의 조직구조는 비즈니스 서비스부와 헬스케어(Heath Care ;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진단기기·동물약품)·화학제품(Chemicals ; 기초·정밀화학)·폴리머(Polymers ; 플라스틱, 폴리우레탄, 고무, 페인트) 등 3개 사업부,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주), 바이엘 세웁(주), 크롭사이언스(주) 등 3개의 독립법인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동물용의약품사업부의 경우 1965년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동물약품 시장에서 선두업체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고 있으며, 그 원동력은 바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앞선 기술력으로, 한국시장에 알맞은 동물용의약품을 개발해내는데 전력을 다한 결과라고 바이엘코리아 동물용의약사업부 부사장 Hans Taenzler는 설명한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현재 각종 항균제, 사료첨가제, 소독제, 생물학제 제제 및 치료제 등 200여가지의 제품이 철저한 품질관리와 KVGMP 기준에 의한 엄격한 공정관리로 생산되어 양축농가 및 사료회사에 공급되고 있다.

“그동안 바이엘코리아는 제품의 품질에 관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로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과는 바이엘의 중요한 자원인 직원들과 그들의 프라이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Mr. Hans Taenzler는 바이엘의 성공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강조한다.

실적을 단지 숫자로만 평가하지 않는다

바이엘 직원의 자사에 대한 프라이드는 대리점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현재 전국에 70여개의 바이엘대리점이 있는데 이들 대리점 대표중 60%가 전직 바이엘맨으로 회사에서 추구하는 제품에 대한 철학과 프라이드를 간직하고, 이를 필드에 그대로 적용시켜 농장의 quality와 나아가 바이엘의 quality를 높여주고 있다고 Mr. Hans Taenzler 설명한다.

“그래서 본사에서서는 이들 대리점을 관리할 때 실적만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돈의 개념을 떠나 필드에서 정말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지, 자신이 관리하는 농장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 농장의 quality를 올려줄 수 있는지, 직원교육과 세미나는 정기적으로 하는지...등 주로 이런 것들을 위주로 대리점을 관리하고, 또 따라와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엘코리아 동물약품사업부에서는 기초반, 중급반 등으로 나누어 대리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경영자반 코스를 새로 신설하여 외부 교수나 실무자를 초청, 대리점 대표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년에 한번씩 대리점 평가회를 하는데 이 평가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1년 동안 실시했던 현장실무와 대농장 고객 서비스, 판매실적 등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제품과 연결된 모든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Responsible Care

Mr. Hans Taenzler는 국내 동물약품 시장에서 바이엘 직원들과 대리점들은 보다 더 프로다워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이 말은

바이엘에 대해서만 국한되진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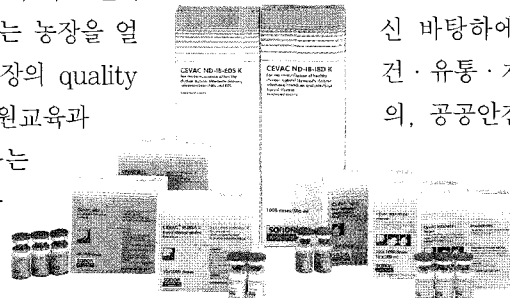
국내 동물약품 업체는 기술수준과 제품품질, 판매망에 대해서도 자사 나름대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움직여줘야 하며, 또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례로 바이엘은 화학산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고객 및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더 나아가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목표 아래 “Responsible Care”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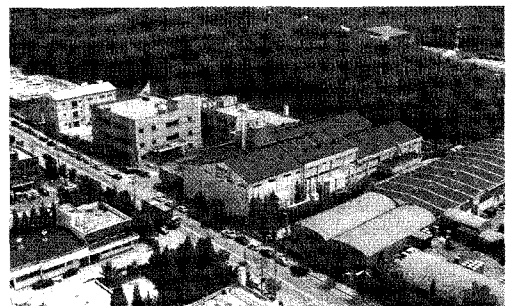
“Responsible Care”는 전 세계 화학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환경·안전·보건 개선 활동으로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진다’는 제품 책임 정신 바탕하에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유통·제품 전 과정의 책임주의, 공공안전, 오염방지, 주민인식 및 비상대응 등 모든 과정에서 환경이나 인체의 위험한 요소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안전교육 및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제품의 품질과 연결되는 모든 부분까지 책임질 줄 아는 기업, 바이엘이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바이엘코리아는 현재 680명의 인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2년 총 매출액은 약 4,500억원(예상치)이다(동물약품사업부 매출액 약 418억원).



바이엘코리아에서 생산되는 양계백신



▲ 반월 공장 전경